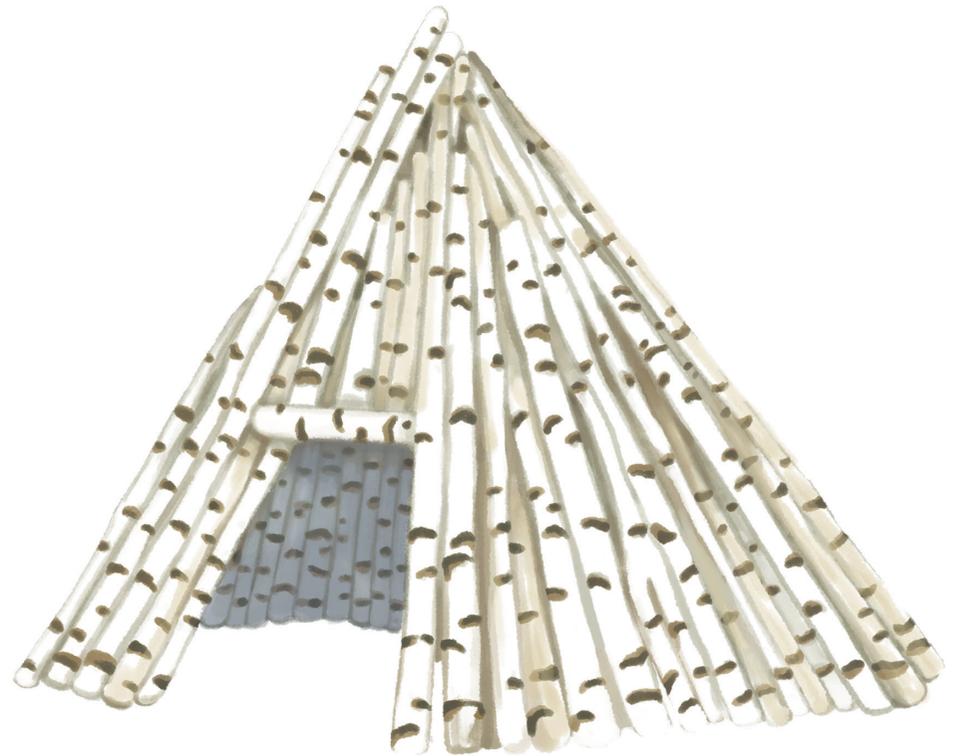


하늘내린  
인제를 색칠하다



## 하늘내린 인제를 색칠하다

03 인제군을 알아보아요

06 자작나무 숲

08 인제산촌민속박물관 · 박인환문학관

10 합강정 · 합강문화제

12 인제 스피디움

14 뗏목아라리

16 숲가마등치기

18 빙어축제

20 백담사

22 한계산성

24 황태덕장 · 황태축제

26 십이선녀탕

28 대승폭포

30 봉정암

32 모험레포츠 천국

34 곰배령

36 방동약수

38 마의태자

40 인제곤충바이오센터

42 인제라이딩센터

44 대암산 용늪

## 인제군을 알아보아요

### 인제 행정구역

인제군은 총 6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개의 읍(인제읍)과 5개의 면(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이 모여 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인제 상징물



### 군기

인제군의 군조 비둘기, 천혜의 관광자원 내린천,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방어, 그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상징해요.



### 마스코트

청정지역인 인제의 지역적 특징을 상징. 천연기념물이며, “수달이”란 이름으로 불려요.



### 군목: 주목

항상 푸르른 진록색의 청렴하고 끈기가 있으며 변함없는 군민성을 상징해요.



### 군화: 철쭉

삼목이나 실생으로 번식력이 강한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상징해요.



### 군조: 백비둘기

떼를 지어 살아가는 특성은 군민의 협동과 단결로 상부상조하는 군민성을 상징해요.

## 인제 5대 명품



곰취



오미자



황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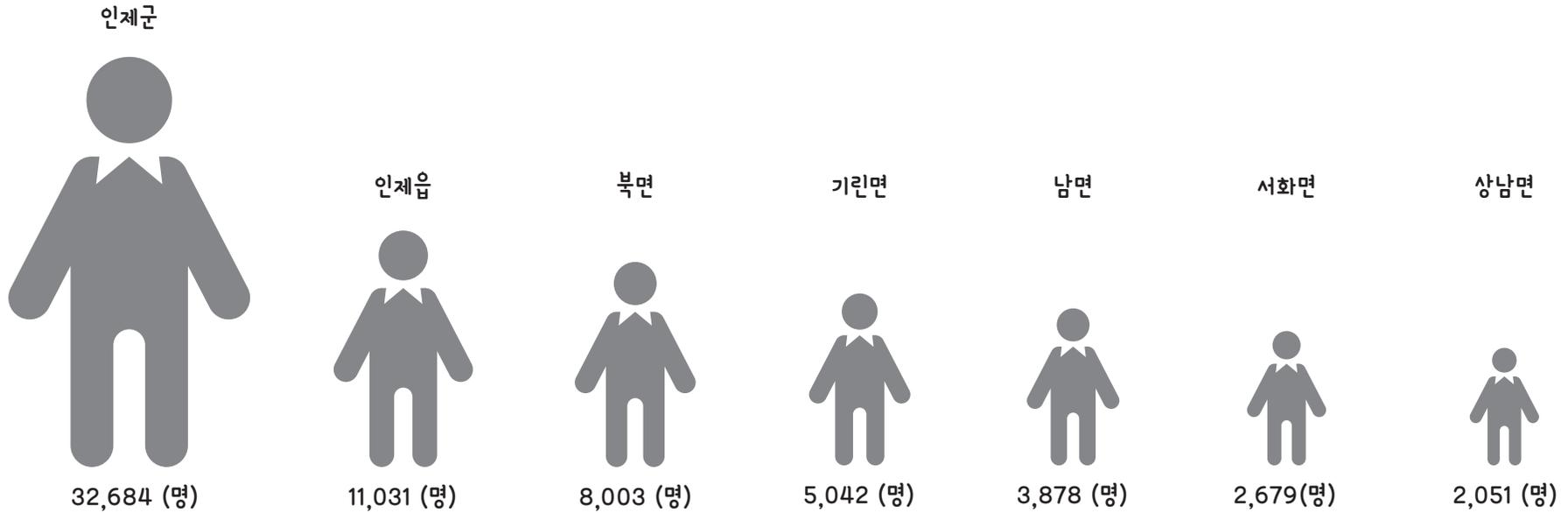


콩



풋고추

## 인제 인구변화도 (2022.10.31.기준)



### ● 인제의 토지 이용

인제는 산 89.4%, 밭 3.26%, 논 0.9%로 산이 대부분이고, 산이 많다보니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지어요.

### ● 인제의 산업구조

인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2%로 가장 많아요.

### ● 인제의 자량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여유로운 시골 인심 등 살기 좋아요.

## 자작나무 숲

“자작자작 키 큰 나무들의 숲이야”



혹시 자작나무를 본 적이 있어? 자작나무라는 이름은 불을 붙이면 껍질이 타면서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

자작나무는 껍질이 하얀색이라 어느 계절에 봐도 정말 예뻐. 이렇게 예쁜 자작나무가 여럿이 모여 자작나무 숲을 이루는데, 그 자작나무 숲이 우리 고장 인제에 있어. 키가 아주 큰 자작나무들이 백백하게 모여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작나무 숲을 보러 인제에 많이 놀러 온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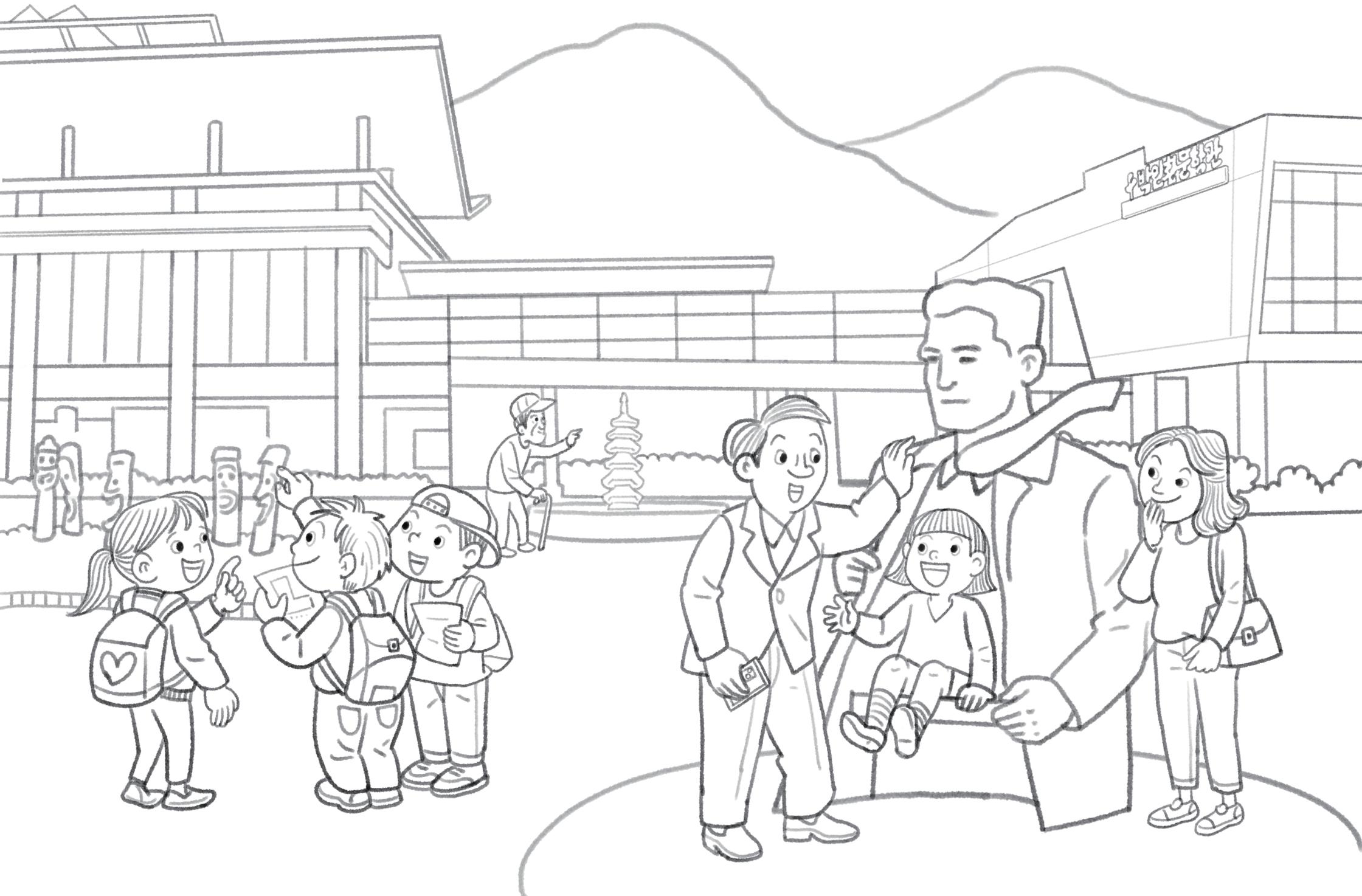
## 인제산촌민속박물관·박인환문학관

“산골 마을과 시인의 마을을 볼 수 있다”



산이 있는 시골 동네를 산촌이라고 하지? 우리가 사는 인제는 설악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 산촌이야. 옛날 사람들은 산촌인 인제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 모습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준단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옆에는 박인환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어. 박인환 아저씨는 인제에서 태어나 10살까지 인제에 살았다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대. 유명한 작품으로는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이 있다고 해. 박인환 아저씨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박인환문학관을 만들었대. 우리 한 번 가서 구경해볼까?



## ● ● ● 합강정·합강문화제

“멋진 기와지붕이 있고 축제가 열리는 곳이야”



인제에는 내린천과 인북천이라는 강이 있어. 이 두 강이 신기하게도 합쳐지는 곳이 있대. 두 강이 합쳐지는 곳이라 합강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멋진 정자가 있어 '합강정'이라고 불러. 합강정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멋진 기와지붕과 함께 가로는 교실 3칸의 넓이 정도이고, 높이는 2층으로 이루어졌어.

인제군은 합강정이 있는 곳에서 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 이름을 합강문화제라고 해. 합강문화제에서는 여러 행사가 열린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기도 하고, 어느 동네가 이기나 운동 경기가 열리기도 한 대. 많은 사람이 모여 합강문화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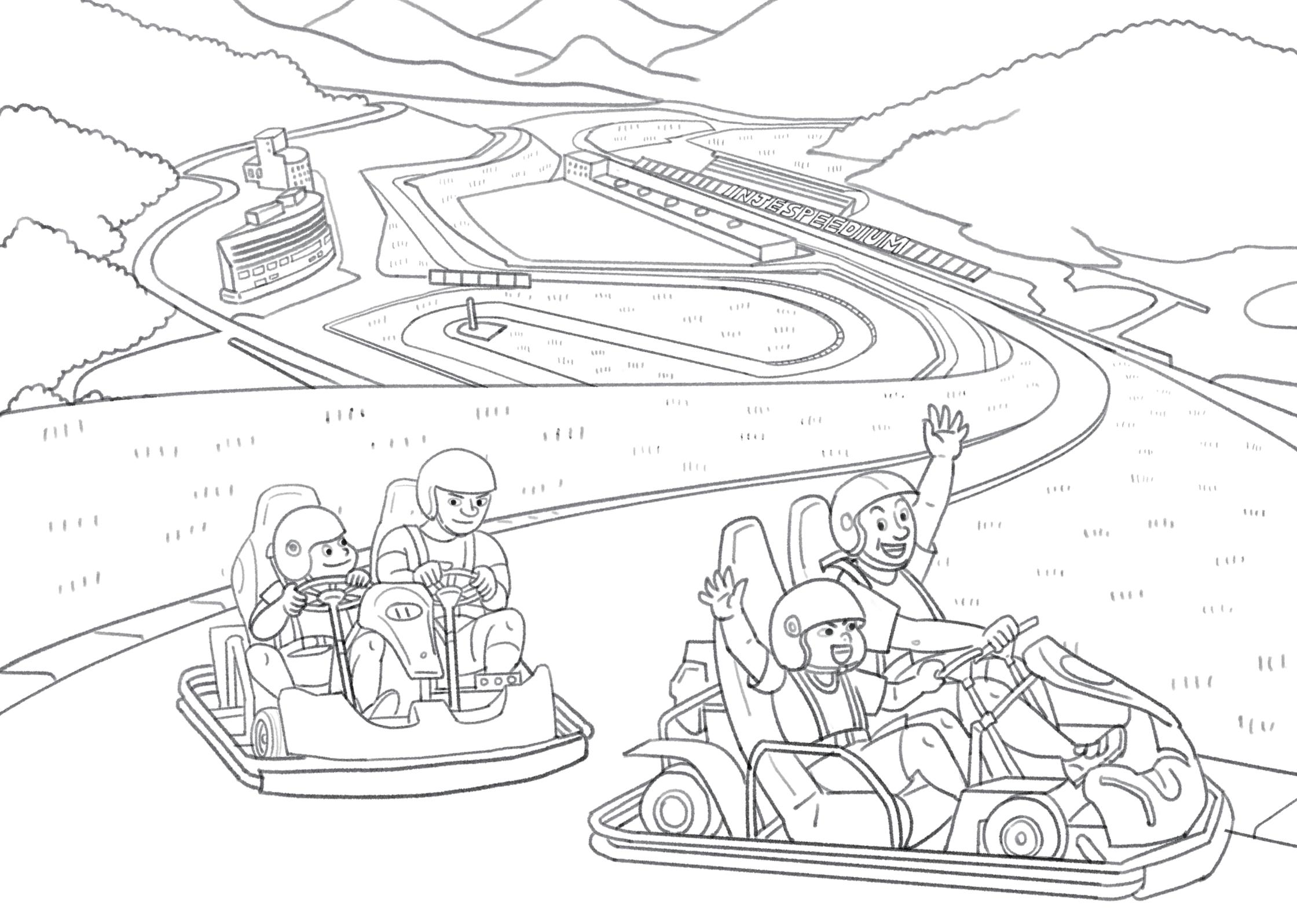


## 인제 스피디움

“아주 빠른 자동차 경주와 체험을 할 수도 있어”



자동차 경주대회를 본 적이 있어? 우와~ 자동차들이 아주 빠르게 달리는 걸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인제 스피디움은 자동차 경주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 우리나라 첫 번째로 자동차 경주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란다. 자동차 경주장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제에 놀러와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자동차 경주를 경험해볼 체험시설도 있다고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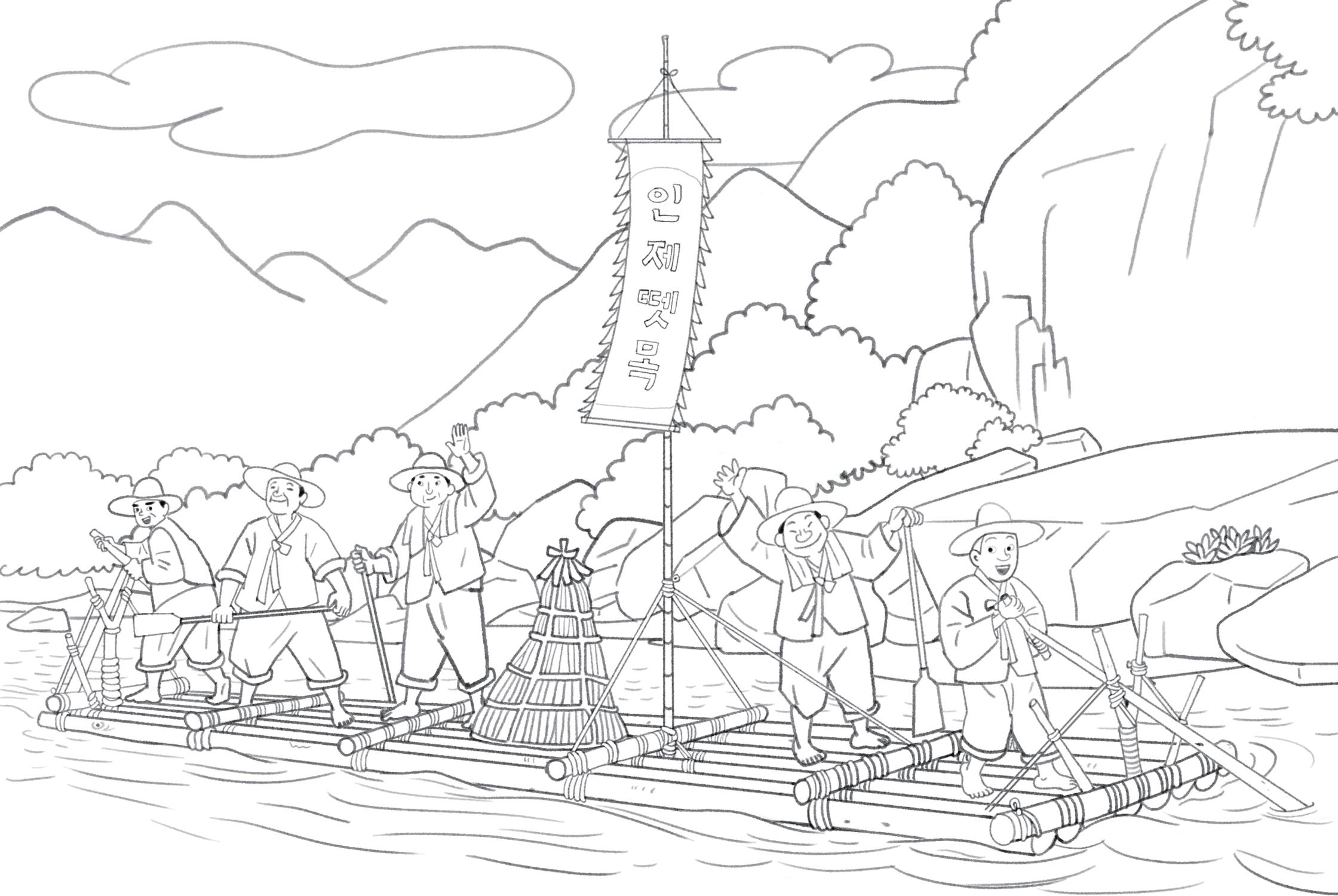
# 뗏목아라리

“나무를 엮어 만든 배에서 일하며 부르던 노래야”



인제에는 많은 산이 있다고 했지? 옛날 조상들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 뗏목을 만들었어. 뗏목은 나무를 엮어 만든 배인데, 이 뗏목에 인제에서 벤 여러 나무를 실어 합강에서부터 한양(지금의 서울)까지 날랐다고 해. 물길을 통해 오가는 뗏목꾼들은 지루함을 달래고자 노래를 불렀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댐이 세워지고 뗏목을 만들어 물길로 옮기는 풍습과 노랫소리가 사라져갔지. 그래서 인제군과 인제문화원은 과거의 풍습을 놀이로 다시 만들었어.

그 결과로 북면 냇강마을에서는 뗏목을 만들어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뗏목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로부터 노래가 재탄생했고, 그게 바로 뗏목아리리야.



인  
제  
뱃  
목

# ••• 숯가마등치기 놀이

“가마꾼들의 힘든 노동이 담긴 놀이야”



나무가 많은 인제에는 나무를 구워서 만든 숯도 아주 유명했어. 옛날에 숯은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지. 임금이 사는 궁궐까지도 인제에서 만들어진 숯을 사용할 정도로 유명했나 봐. 이러한 숯을 만들기 위해 옛날 사람들은 가마를 직접 만들었어. 가마는 숯을 만들 때 쓰는 것이야.

가마가 무척 단단해야 했기 때문에 가마꾼들은 가마의 위에 올라가 커다란 나무 망치로 오랫동안 두들겼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가마꾼들은 망치로 두들길 때 노랫소리에 맞춰 숯가마를 쳤대. 가마꾼들의 힘듦이 담긴 이 놀이가 바로 숯가마 등치기 놀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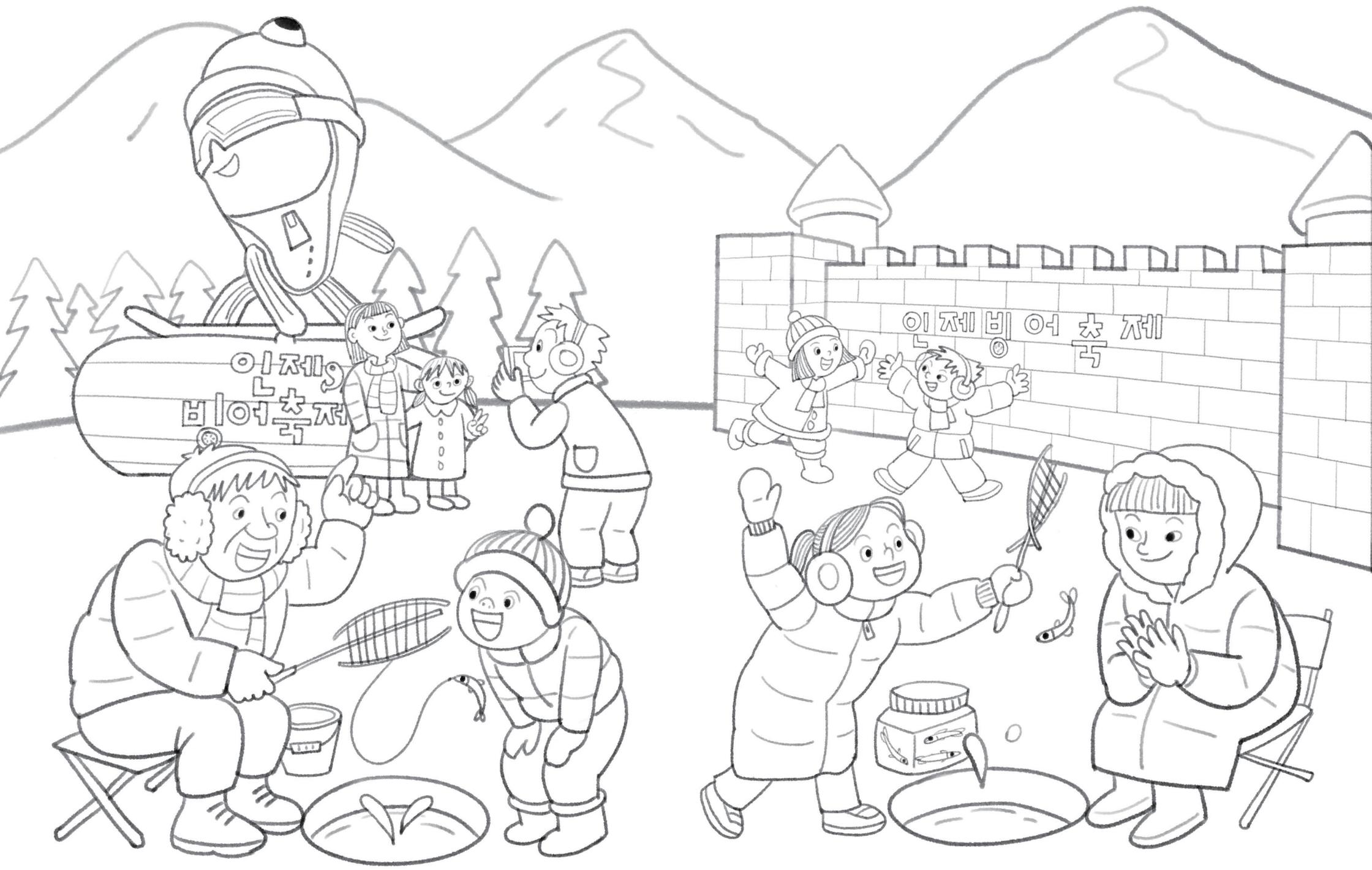


# 인제 빙어 축제

“다양한 겨울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인제의 겨울하면 떠오르는 게 있니? 바로 빙어 축제! 인제 빙어 축제는 아주 유명해.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역 축제로서는 역사가 오래된 편이야. 해마다 1월 중순경, 열흘 동안 남면 부평리에서 열려. 깨끗한 물에 사는 빙어는 인제와 잘 어울리는 물고기야. 빙어 축제에서는 빙어 낚시도 하고, 빙어 요리도 먹을 수 있고, 썰매나 빙상볼링과 같은 겨울 놀이도 체험할 수 있어. 이번 겨울 빙어 축제에 같이 가볼까?



이제비어축제

이제비어축제

## 백담사

“청봉에서 100번 째 연못이 있는 곳에 지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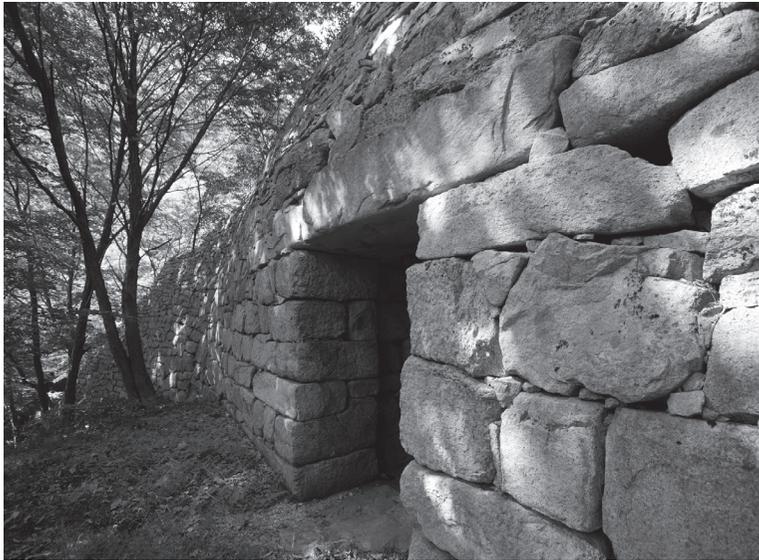
백담사라는 절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어. 신라의 진덕여왕 때 자장 법사라는 스님이 '한계사'라는 절을 만들었지. 그 이후 한계사는 여러 이름을 거쳐 '백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대. 지금의 백담사가 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옛날에 산불을 걱정하시던 한 스님의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 "청봉에서 100번째 연못이 있는 곳에 절을 지으면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절을 지었고, 이름도 백담사로 바꾸었다고 해.



# 한계산성

“고려시대 몽고와의 싸움을 대비해 만든 곳이야”



인제군에는 참 산이 많아. 그중에서도 설악산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중 한계산이라고도 했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산 주변을 돌로 쌓았는데 그런 곳을 산성이라고 한단다. 한계산에도 산성이 있는데 이곳을 한계산성이라고 해. 고려시대 때 몽고와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데 험한 산속에 성을 쌓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거야. 다른 산성과 다르게 돌을 쌓는 기술이나 모양이 달랐고, 성문 또한 독특하게 생겨서 역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싶어지는 곳이라.



# 황태덕장.황태 축제

“얼고 녹기를 반복해야 맛있는 황태와 관련돼 있어”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황태로 유명해. '명태'라는 생선을 겨우내 말린 것을 황태라고 하고, 말리는 곳은 덕장이라고 하지. 황태는 밤에는 추워서 꼼꼼 얼고 낮에는 더워서 녹는데, 얼고 녹기를 반복해야만 맛있어진대. 용대리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황태를 만들기 딱 좋아. 그래서 인제군 용대리에 가면 황태덕장도 많고, 여기서 나는 황태는 전국 곳곳에서 팔린단다. 그리고 황태가 주인공인 용대리 황태 축제에 가면 맛있는 황태를 많이 맛볼 수 있어.



황태  
축제

# 십이선녀탕

“열두 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던 계곡이란다”



옛날에 열두 명의 선녀가 용대리에 있는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십이선녀탕이야. 폭포가 떨어지면서 바위를 깎아내려 탕이 만들어진 거래. 그중에서도 일곱 번째 탕이 아주 멋진 경관을 이룬다는데, 이름이 복숭아탕이래.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니? 복숭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트 모양으로도 보여 많은 등산객이 복숭아탕을 보러 놀러 온대.



# 대승폭포

“어머니와 아들의 사연이 담겨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어”



조선시대 3대 폭포 중 하나인 대승폭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높이를 자랑한다. 특히 이곳은 전설이 남아 있는 곳이야. 옛날 대승이라 불리는 총각이 버섯을 따며 생활하고 있었대. 어느 날, 절벽에서 동아줄을 타고 버섯을 따고 있는데 절벽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대승은 얼른 위로 올라왔어. 그런데 어머니는 없고 커다란 지네가 동아줄을 뜯고 있더라. 동아줄이 막 지네에 뜯겨 끊어지려는 참이었어. 대승은 어머니의 외침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 아들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친다하여 폭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게 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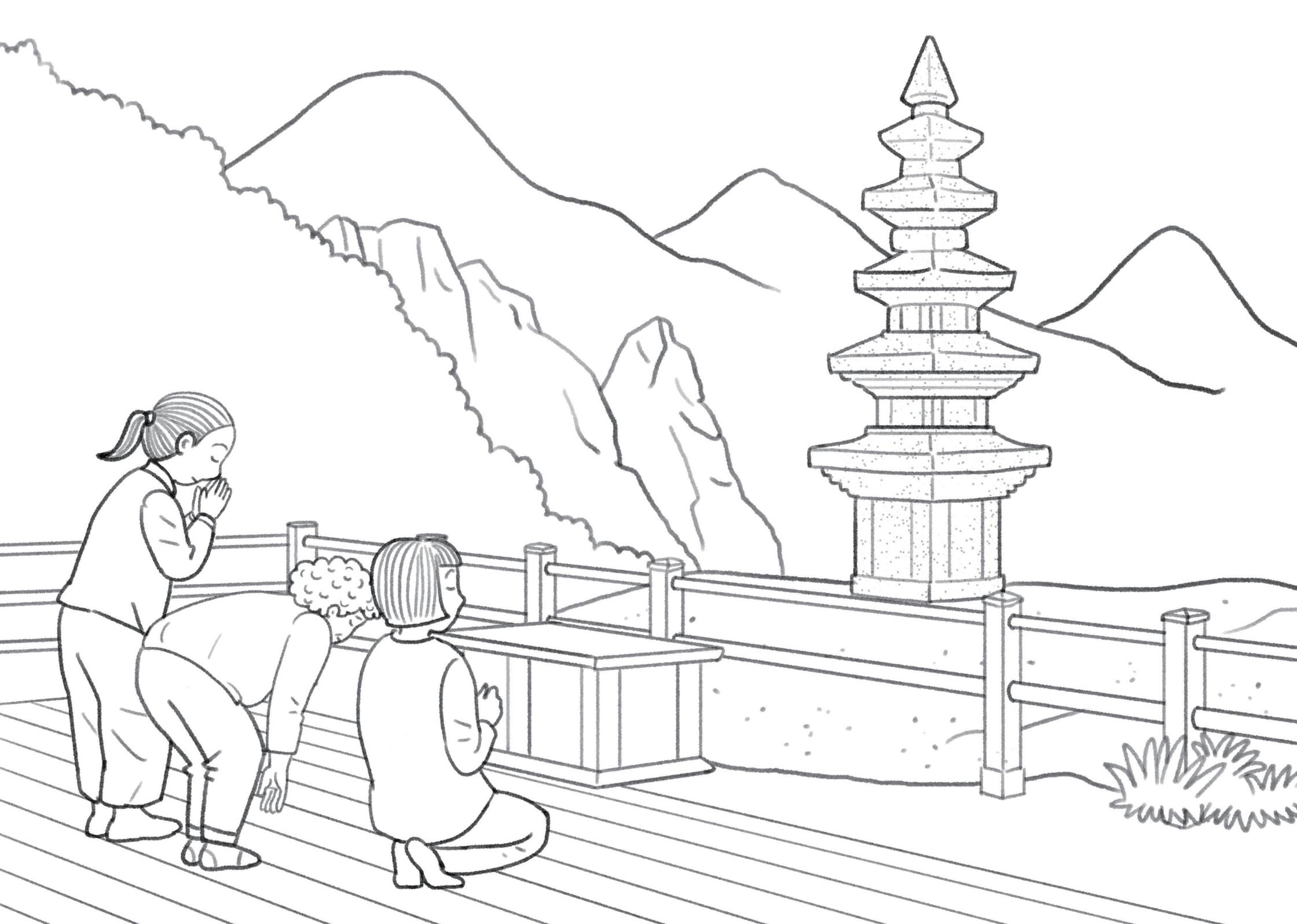


# ●●● 봉정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야”



백담사를 기억하니? 봉정암은 백담사에 속해 있는 절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찾는 곳이야.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석가모니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이지. 워낙 깊은 산중에 있어 백담사에서 반나절 이상 걸어야만 봉정암을 찾을 수 있대. 그래서 봉정암에는 불교 신자들이 묵을 수 있는 여러 동의 요사채가 있어. 요사채는 스님들이 머무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봉정암에는 오층석탑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이 석탑 아래에 보관해 두었다고 해.



## 모험레포츠의 천국

“래프팅과 번지점프, 쥘트랙 등을 즐길 수 있어”



인제 곳곳에서는 여러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자, 한번 소개해볼까? 내린천의 물살을 가르며 래프팅, 강과 계곡 사이를 누비는 아르고(수륙양육차), 합강공원에 있는 번지점프, 나르샤파크에 있는 스캐드 다이빙, 1인칭 총싸움 서바이벌 게임인 '서든택 얼라이브', 도르래를 이용해 허공을 걸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쥘트랙',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암벽등반 '아이언웨이'까지, 인제에서는 정말 많은 레포츠를 즐길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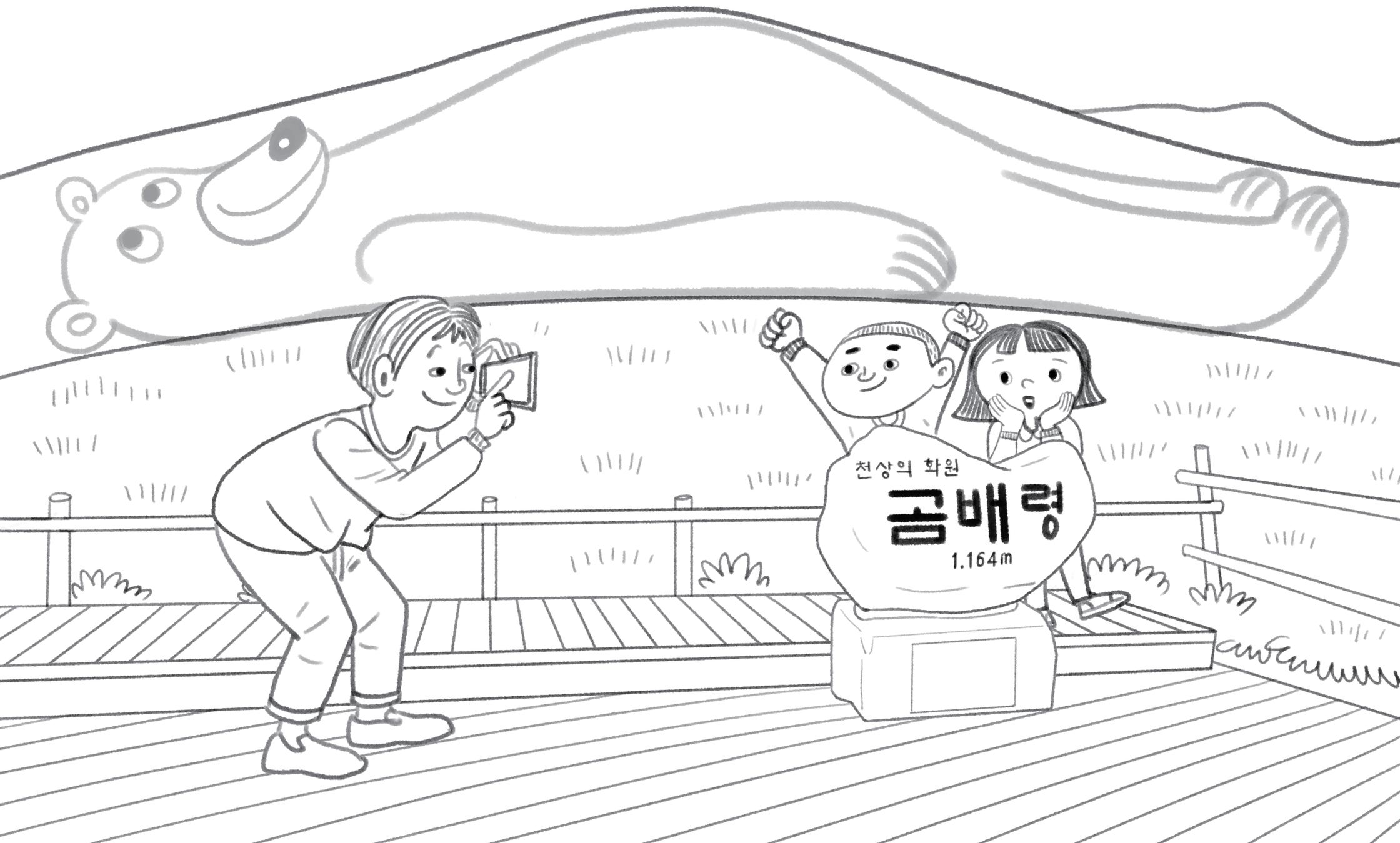


## ●●● 곰배령

“계절별로 야생화가 야생화가 무리지어 있는 멋진 곳이야”



곰배령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있는 곳으로,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하고 벌떡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야. 높은 곳에 넓은 평지로 되어 있고 계절별로 각종 야생화가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멋진 곳이란다. 봄에는 얼려리꽃, 여름에는 동자꽃, 노루오줌, 물봉선, 가을에는 쑥부랑이, 용암, 투구, 단풍 등을 볼 수 있지. 곰배령은 경사가 완만하여 할머니들도 콩 자루를 이고 장을 보러 넘어 다니던 길이라.



천상의 화원

곰배령

1.164m

## 방동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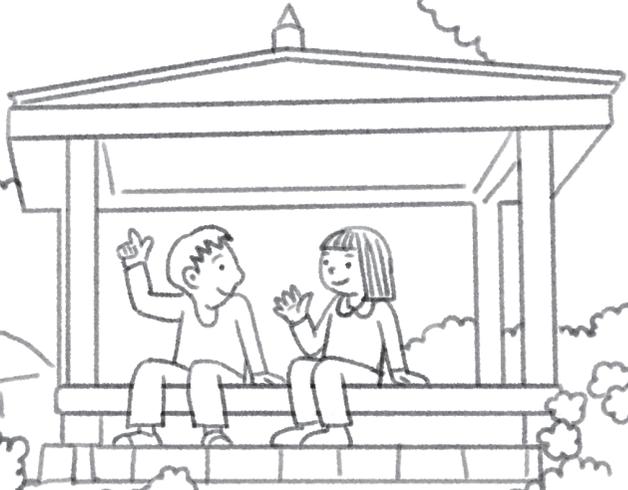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솟아나는  
신비의 명약이 있는 곳이야"



방동약수는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약수를 말하는 거야. 이 약수에는 신기한 전설이 있는데 한 번 들어봐.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심마니(약초를 캐는 사람)가 방동리에서 아주 귀한 약초를 찾아냈어. 그 약초는 60년이 된 씨가 달린 산삼이어서 누구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그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약수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곳이 방동약수였던 거야. 많은 사람이 이 약수를 마시고 건강해졌다고 해. 이 물에는 탄산이나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 맛이라는데 우리도 경치 좋은 방동약수를 찾아 시원한 물맛 한 번 볼까?



방동약수



• • •

## 마의태자

“천년왕국 마지막 왕자의 슬픈 사연을 담고 있어”



마의태자는 마(배)웃을 입은 왕의 아들을 말해. 왕의 아들인 태자가 이곳 인제에 머무르게 된 슬픈 이야기가 있어. 때는 신라가 후백제와 고려 왕권 세력에 쫓기고 있던 통일신라시대야. 백성을 위해 항복을 택한 아버지와 달리 마의태자는 나라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라를 내어주던 날, 마의태자는 매우 슬퍼하였어. 마의 태자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 함께 산속 깊은 인제 김부리에 와서 머물게 되었다고 해. 마의태자라는 명칭은 배웃을 입고 일생을 보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



# 인제곤충바이오센터

“곤충의 역사와 구조,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곤충 좋아해? 그럼 인제에 있는 곤충박물관, 인제곤충바이오센터로 가봐. 인제군 상남면에 있다는데 다양한 곤충을 관찰할 수 있어.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곤충의 역사와 구조, 생태도 배울 수 있대.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벌레'와 장갑차를 생각나게 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까지 다 볼 수 있어. 특히 유리로 된 나비 온실에는 여러 종류의 나비가 한가득 있다고 해. 우와~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인제 곤충바이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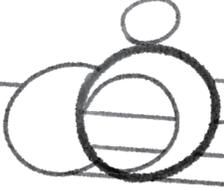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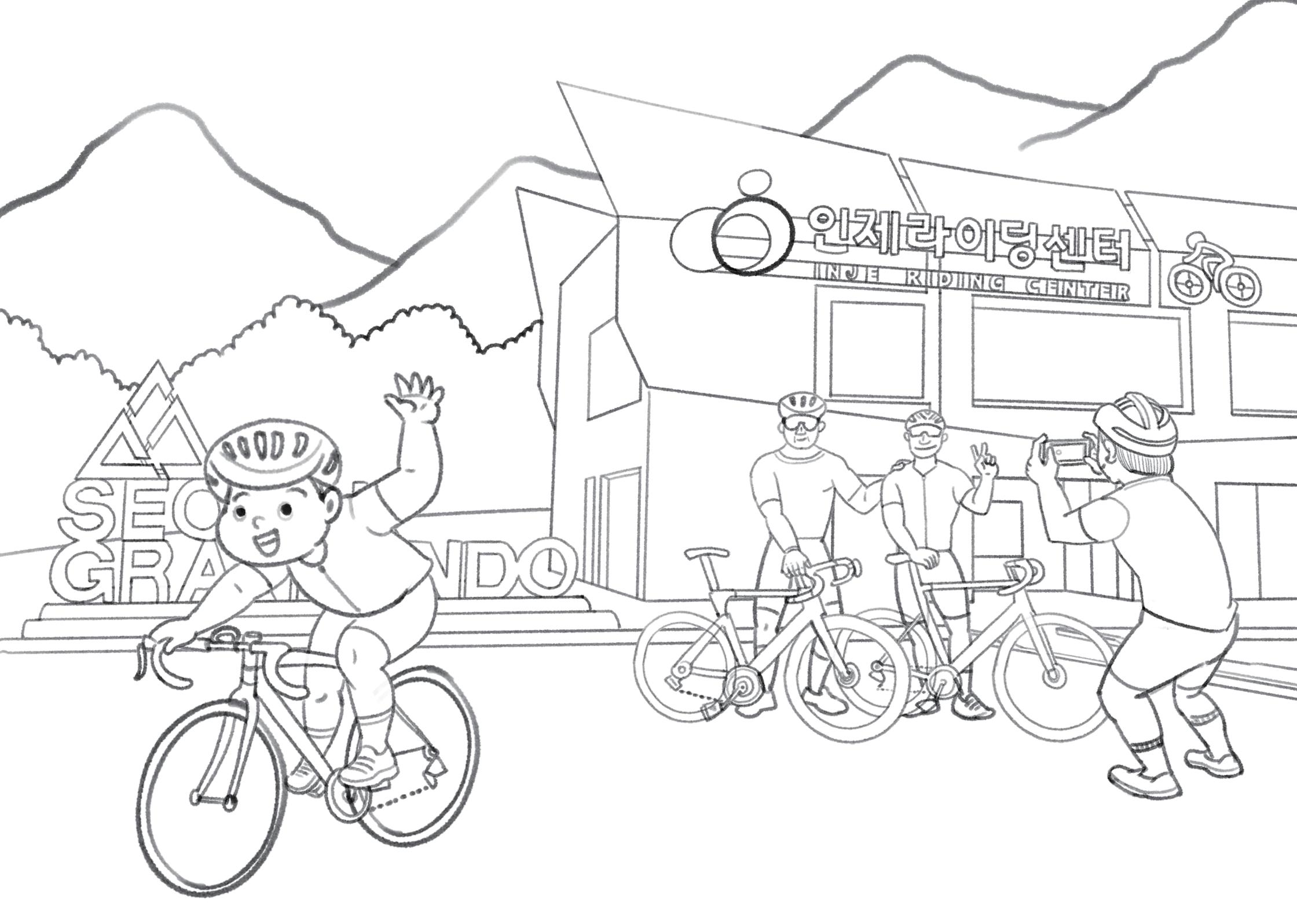


# 인제라이딩센터

“아름다운 자연을 자전거 타고 감상할 수 있어”



인제라이딩센터는 인제군 상남면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는 자전거 전문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10년 전 처음 시작한 국제 자전거 대회가 해마다 인제와 설악산에서 열린다고 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지. 같이 자전거 타러 가볼까?



인제라이딩센터  
INJE RIDING CENTER



SEOGRAND DO

## 대암산 용늪

“4,000년이 넘는 습지가 있는데  
승천하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



인제군 서화면의 대암산에는 '승천하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이름의 용늪이 있어. 늪은 습지라고도 하는데 고여있는 물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곳을 말해. 특히 이곳 대암산 용늪은 높은 지역에 만들어진 습지라 더욱 특별하다고 해. 습지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4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대. 많은 종의 다양한 식물도 볼 수 있지만, 도롱뇽이나 물두꺼비, 개구리들도 볼 수 있어.



“수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역사와 문화예술의 고장 인제를 만나다.”



## 하늘내린 인재를 색칠하다

펴 낸 날 2022년 12월

글 쓴 이 서화초등학교 6학년 박연 이해주

펴 낸 이 이경

펴 낸 곳 강원도인재교육지원청

책임 편집 이가영

사 진 인재군청

24631)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상동리)

TEL. 033-460-1051 FAX. 033-460-1058